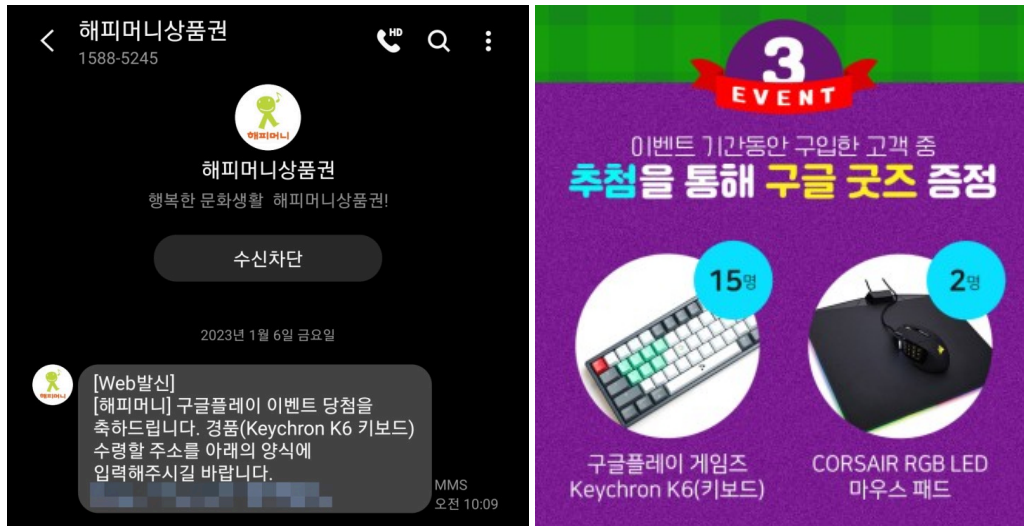


현질한다고 해피머니상품권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경품에 당첨되었다.

경품이 키보드인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서 리뷰를 남겨본다.



[오른쪽 이미지 출처](#)

상자 외관이 상당히 고급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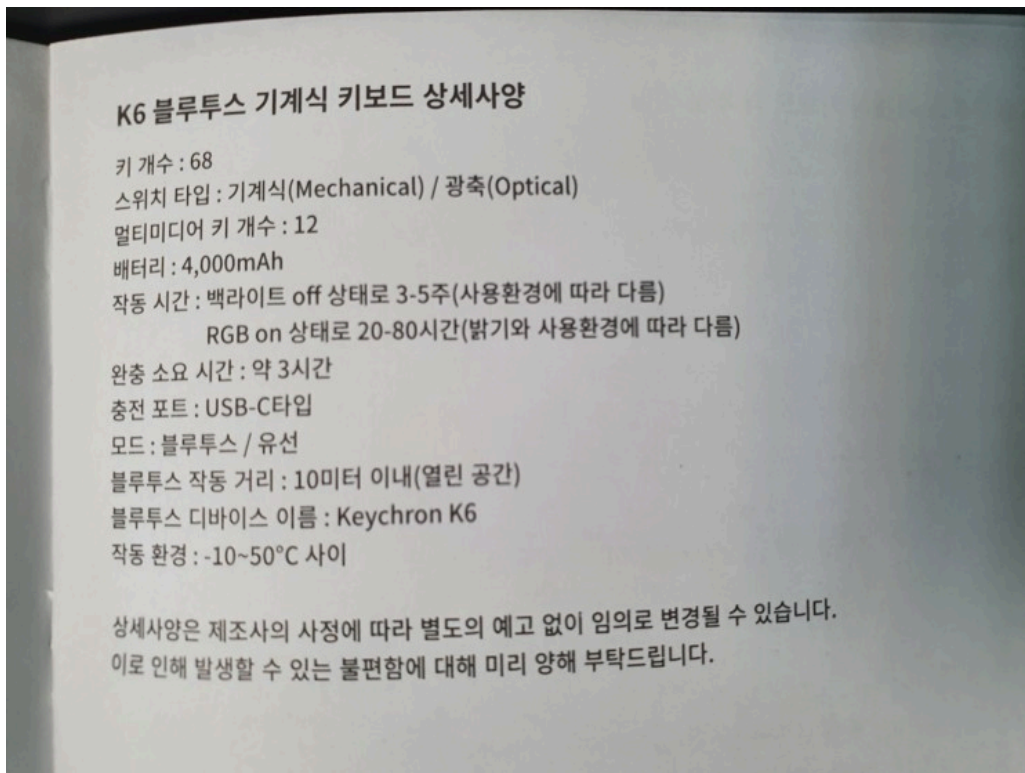
상자를 개봉하면 유저 매뉴얼의 요약본 역할을 하는 퀵스타트 가이드가 반겨준다.



가이드 밑에는 키 캡 리무버, 키보드, 유저 매뉴얼이 깔려 있다.
키 캡으로 자연스러운 구글 굿즈 표가 나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.



키보드 상세사양은 다음과 같다.



추가 키 캡 세트는 윈도우 유저를 위한 것과 그냥 디자인만 다른 키 캡이 섞여 있다.



윈도우 유저인 나는 가이드에 따라 키 캡을 다시 장착해 주었다.

구글 키 캡과 좌측 상단 ESC 키 캡, 우측 상단 광원 효과 키 캡은 어두운 톤이 좀 더 취향에 맞았다.

이렇게 키 캡을 맞추면 흰색, 검은색, 민트색 삼색 톤 키보드가 완성된다.

심플, 모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딱일 듯.



기존 키보드와의 비교.

미니 배열 키보드라서 세로 길이 차이 체감이 확 된다.

무게도 훨씬 가볍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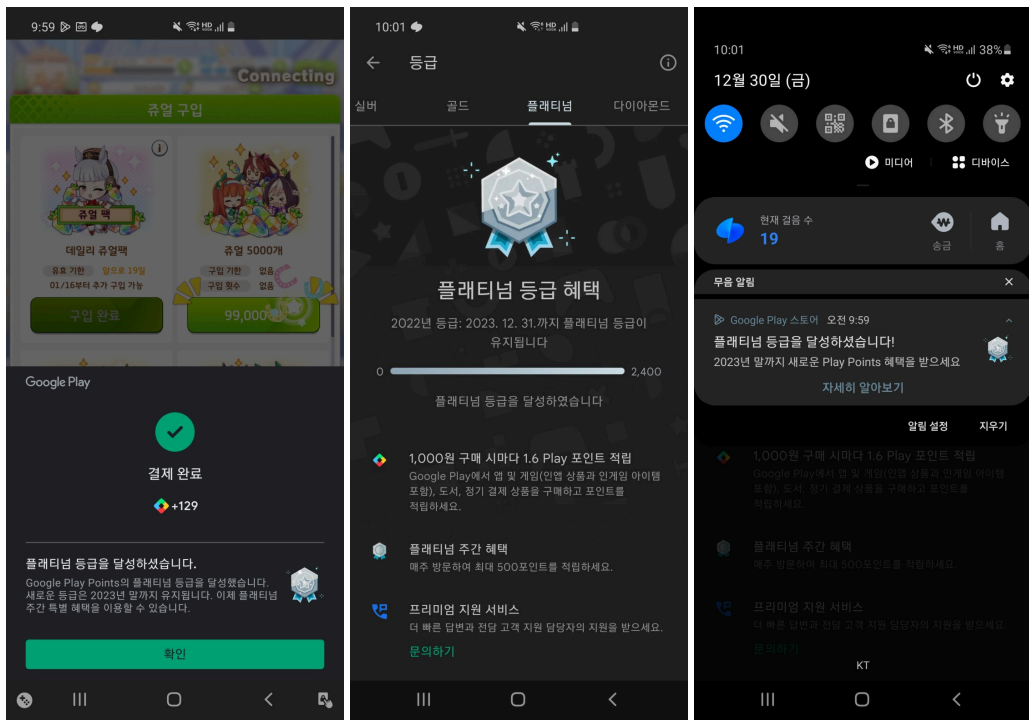
짧은 시프트 키와 텐키리스로 숫자 입력이 어색한 것만 빼면 생각보다 사용에 불편함은 없었다.

신기하게도 두 키보드의 백스페이스키 화살표 방향이 서로 반대다.



해당 키보드로 맥북 부트 캠프 이용해서 윈도우, 맥 환경에서 써보고 세세하게 후기를 적어줬는데 메모장 저장을 깜빡해서 내용을 날려먹었다.
기억나는 사용 후기, 팁만 정리해서 남겨본다.

- 외관만 보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, 기존 키보드보다 키가 적은 타입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가볍다. 노트북과 함께 휴대용 키보드로 쓰면 딱일 듯.
- 좌측에는 운영체제 변경 토글 스위치와 모드 변경 토글 스위치가 있어 간편하게 OS에 따른 키보드 전환, 케이블/블루투스 연결 변경이 가능하다.
- 키감이 괜찮다. 기존 키보드보다 소리는 작게 나면서 키감은 남아 있는 게 마치 제로 콜라 같은 느낌.
- 윈도우에서는 스페이스 바 오른쪽 키가 [ctrl 한자] 키로 동작하도록 디폴트 설정되어 있는데, [alt 한/영] 키로 디폴트 설정 변경하는 편이 훨씬 쓰기 편하다. 디폴트 설정의 반대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fn1과 스페이스 바 오른쪽 키를 동시에 누르면 되는데, fn1 먼저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 오른쪽 키를 눌러야 한다. 동시에 누르니까 제대로 동작이 안 돼서 처음에 키보드 고장인 줄 알았다.
- 기존에 쓰던 키보드에 비해 키보드 높이가 25mm로 살짝 높다. 팜 레스트 쓰는 사람이라면 감안해서 높이를 맞춰야 할 듯.
- 지금 이 글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, 잘 동작한다.



작년에 구글 플레이 포인트 플래티넘 등급 달성했는데, 그 리워드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한다.
끝!